

高麗時代 釋讀口訣의 ‘尸/ㄹ’에 대한 考察

南 豊 鉉*

1. 序言

高麗時代의 釋讀口訣資料가 근래에 와서 계속 발굴되어 이 자료를 통한 國語史研究가 활기를 띠게 되었다. 현재 학계에 알려진 高麗時代의 釋讀口訣 資料는 「舊譯仁王經」上卷의 落張 5매(이하 ‘舊仁’), 「瑜伽師地論」卷20(이하 瑜伽)¹⁾, 「新譯華嚴經」卷14(이하 華嚴)²⁾, 「大方廣華嚴經疏」卷35, 「金光明經」, 2行 남짓하지만 均如의 釋華嚴經教分記이다. 이 가운데 「舊譯仁王經」, 「瑜伽師地論」, 「新譯華嚴經」은 풍부한 용례를 보여 주는 것이어서 우리가 매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나 「大方廣華嚴經疏」와 「金光明經」은 口訣研究會에서 南權熙교수에 의하여 소개만 되었을 뿐 아직 未公開이다.

현재 舊仁은 12세기 중엽의 자료로, 華嚴은 12세기 후반이나 13세기초의 자료로, 瑜伽는 13세기 후반의 자료로 보고 있다. 자료의 시기는 추정된 것이어서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크게 틀리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자료마다 문자체계가 표현상의 특징이 있어 이것이 바로 언어상의 시대 차이를 나타낸다고 볼 수는 없다. 물론 瑜伽는 13세기 후반의 자료로서의 특징을 분명히 보여주지만 그렇다고 그 언어가 반드시 13세기 후반의 언어라고

* 檀國大

- 1) 拙稿(1993), 高麗本 瑜伽師地論의 釋讀口訣에 대하여, 「東方學志」 81, 延世大國學研究院, 참조.
- 2) 拙稿(1994), 「新譯華嚴經」卷14의 高麗時代 釋讀口訣, 「國文學論集」 14, 檀國大國文科. 참조. 이 자료는 생략표가 많고 토의 위치나 字形에 있어 오류가 있으므로 原典 批判을 거쳐 이용해야 될 것이다. 현재는 이용상 각별한 조심이 요망된다.

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 왜냐 하면 이 구결이 같은 13세기 후반의 것으로 추정되는 朴東燮本 楞嚴經의 順讀口訣과는 현저하게 다른 古形의 문법을 보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고려시대의 釋讀口訣은 시대적인 변화를 나름대로 반영하고 있음은 분명하지만 강한 文語의 保守性을 지니고 있어 구결의 형성연대가 곧 언어의 연대라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리하여 瑜伽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언어현상이 舊仁이나 華嚴의 언어보다 후대의 것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舊仁과 華嚴의 관계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華嚴에만 나타나는 형태가 舊仁의 것보다 先代의 것일 수 있고 그 반대의 현상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들 세 문헌에 나타나는 언어는 均如의 鄉歌 이후 12세기 후반과 13세기 후반의 언어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되 이보다도 더 오래된 언어현상이나 독법도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자료는 발굴될 때마다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우리들을 감동시키는 것이지만 자료가 쌓일수록 새로운 과제도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종래 舊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들과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져 이 방면의 연구자들을 고무시켜 주지만 아직은 그 연구가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서 앞으로 차분한 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정리의 일환으로 이들 釋讀口訣에 나타나는 ‘尸/ㄹ’의 쓰임에 대하여 고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尸/ㄹ’은 주로 動名詞語尾로 쓰여 15세기국어의 ‘-ㄹ’ 또는 ‘-ㄹ’에 계승되는 것이다.³⁾ 이는 같은 流音 계통인 ‘乙/ㄹ’과 구별되는데 동명사어미로 쓰이는 ‘尸’에 대하여 ‘乙’은 주로 대격조사로 쓰이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것이 당시에 l음과 r음을 구별하였음을 말하여 주는 것으로 보는 데는 어려움이 있어 여기서는 더 깊이 논의하지 않는다. 尸의 음도 편의상 ‘ㄹ’로 나타낸다.

3) 이 동명사어미는 일찌기 ‘金完鎭(1957), -n, -l 動名詞의 統辭論的 機能과 發達에 대하여, 『國語研究』 2, 國語研究會’에서 처음으로 제기하고 논하였다. 이 글은 이 논의를 이어 새로운 자료에 의한 새로운 내용을 보충하게 될 것이지만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나오는 현상을 기술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尸’이 15세기의 ‘ㄹ’에 계승된다 하더라도 15세기의 국어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많은 文法的 특징들을 보여 주므로 이 차이점에 대한 세밀한 記述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현재 부분적으로는 논급이 되긴 하였어도 전반적인 검토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차자를 분포에 따라 분류하고 그 기능과 의미를 밝히되 尸의 기능 전반을 밝히려는데 역점을 두게 될 것이다.

2. 동명사어미 ‘-尸/ㄹ’의 고찰

‘尸/ㄹ’이 동명사 어미라는 사실은 이 어미의 뒤에 格助詞가 연결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하게 된다.

1-1. ㄱ) 有無罪→ …… 諸緣生法→尸_ㄹ 開示_ㄹ / 有無罪와 …… 諸緣生法이라고 하는 것들을 開示하고<瑜伽2,23-3,5>⁴⁾

ㄴ) 方廣→ 希法→ 及 與_ㄹ 論議→尸_ㄹ 分別_ㄹ / 方廣과 希法과 함께 論議라고 하는 것들을 分別하고 하시는 것이다.

<瑜伽2,23-3,5>

ㄷ) 教誡→ 教授→尸_ㄹ 說_ㄹ 得_ㄹ / 教誡와 教授라고 하는 것들을 說할 것을 얻으며 <瑜伽3,5-11>

ㄹ) 若 十地、十自在、尸_ㄹ 獲_ㄹ / 만약 十地와 十自在라고 하는 것들을 얻어서<華嚴13,21-24>

4) 예문은 漢文을 토가 지시한 대로 우리말의 순서로 옮겨 놓은 것이다. 이것이 15세기의 언해문과 유사한 성격을 띠어 이해하기 쉽기 때문이다. 예문 다음에는 빗금을 긋고 그 예문에 대한 해석을 덧붙였다. 해석은 당시의 어법을 들어내기 위한 것이므로 가능한 한 직역을 하였다. 그러나 현대어로 직역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의역도 하였다. 당시의 語法이 분명히 밝혀지지 못한 상황에서의 해석이므로 이 해석은 잠정적인 것이다. 예문의 출전은 < > 속에 文獻의 略稱, 張次, 行數의 순서로 표시한다. 일례로 <瑜伽2,23-3,5>는 瑜伽師地論 卷20의 2張 23行에서 3張의 5行사이에 있는 것임을 나타내고 <華嚴13,21-24>은 大方廣華嚴經 卷14의 13장 21행에서 24행 사이에 있는 것임을 나타낸다.

ㄱ)~ㄷ)에 쓰인 ‘ㄷㄴㄹ/여 홀울’이 동명사어미 ‘ㄹ/리’이 쓰인 토이다. ‘ㄷ/여’는 접속조사로 명사구들을 열거하는 구실을 한다. ‘ㄴ/호’는 동사어간 ‘ㅎ-’와 의도범어미 ‘-오-’가 축약된 형태이다. ‘ㄹ/울’은 대격조사이다. 瑜伽와 華嚴에서 동명사어미와 대격조사가 연결된 형태는 명사구를 열거하는 조사 ‘ㄷ’ 뒤에만 쓰인 것이 나타난다. 이는 이 釋讀口訣에서 동명사어미 ‘ㄹ’이 15세기 국어보다는 폭넓은 범위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이미 쇠퇴의 길에 접어들고 있음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ㄷ/여’는 현대국어로는 조사 ‘-과’로 해석되지만 열거되는 끝 句 ‘ㄷㄴㄹ’은 현대국어의 표현법에 따라 ‘...이라고 하는 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직역을 하지 않았다. ‘ㄴㄹ/홀울’에는 복수를 나타내는 형태가 없지만 사물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들’을 넣어 해석한 것이다. ‘-ㄹ/리’은 觀念形語尾로 時間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眞理的事實을 나타내므로 ‘ㄷㄴㄹ’을 ‘하는 것들’로 해석하였다.

舊仁에는 이 형태가 ‘:ㄴㄹ’로 나타나고 ㄹ 다음에 대격조사가 연결된 예는 나타나지 않는다.

ㄹ) 天王問般若波羅蜜: 光讚般若波羅蜜: ㄴㄹ 說 ㄴハㄴㄹ 1/ 天王問般若波羅蜜과 光讚般若波羅蜜이라고 하는 것들을 설하였다.

<舊仁2,19-,23>

ㄹ)의 ‘:ㄴㄹ’은 ㄱ)~ㄷ)의 ‘ㄷㄴㄹ’과 같이 사물들을 열거한 뒤에 쓰이어 ㄹ이 빠진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여기서 ‘:ㄴㄹ’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하다. 하나는 ‘ㄹ’의 표기를 생략하였다고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ㄹ’이 ‘롤’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전자로 보면 ‘:ㄴㄹ’은 ‘여 홀울’을 표기한 것이 되고 후자로 보면 ‘여 호롤’을 표기한 것이 되어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같은 형태의 표기이다.

그러나 이는 다음의 예로 보아 생략된 표기임을 확인하게 된다.

1-2,ㄱ) 是ㄹ…… 心一境性ㄹ 證得ㄴㄹㄹ[之] 所對治ㄷㄴㄹ 1/ 이것을 …… 心一境性を 證得하는 것의 所對治라고 하는 것이다.<瑜伽14,11-,17>

ㄱ)의 밑줄친 'ㄴ尸>ㄷ'는 '홀읏'으로 읽힌다. 'ㄴ尸/홀'의 '尸/ㄹ'이 동명사어미이고 'ㄷ/읏'는 처격조사, 'ㄷ/ㅅ'은 속격조사이다. 이를 직역하여 'ㄴ尸>ㄷ/홀읏'을 '하는 것의'라고 하였으나 현대어로는 동사의 관형사형 '하는'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舊仁에서는 동명사어미의 표기를 생략하여 다음과 같은 토가 쓰였다.

1-3,ㄱ) 毗舍: 首陀: ㄴ尸> 神我等 ㄴ尸 色心 名 } ... / 毗舍와 首陀라고 하는 것의 神我和 같은 色心을 이름하여... <舊仁14,1-4>

밑줄친 'ㄴ尸>'는 '여 홀읏'로 읽히는 것으로 동명사어미 尸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1-1,ㄱ)의 'ㄴ尸'의 'ㄴ'은 '(ㄹ)ㄹ'로도 읽을 수 있고 'ㄹ'로도 읽을 수 있으나 이 토의 >는 '읏/의'로밖에는 읽을 수 없어 尸의 표기를 생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1-1,ㄱ)도 尸이 생략된 표기로 보게 되는 것이다. 'ㄴ尸>/여 홀읏'의 'ㄴ/여'는 열거의 접속조사이고 '>'는 유정물체언의 속격조사이다. 현재까지의 석독구결에서 비록 생략되긴 하였어도 동명사어미 尸에 속격조사가 직접 연결된 예는 이것이 유일한 것이다.

ㄴ) 地: 及ハ 虛空: ㄴ尸>+ 大衆 ㄹ 而 住 ㄴ尸>+ ㄹ / 땅과 및 虛空이라고 하는 것들에 大衆이 住하고 있다.<舊仁3,13-,15>

'ㄴ尸>+/여 홀읏' 역시 동명사어미 尸의 표기가 생략되었다. '>+/읏'는 두 처격조사 '>/읏'와 '+/읏'가 중복된 복합조사이다. 動名詞語尾 尸과 처격조사 '>+/읏'의 결합 예도 현재까지의 석독구결에선 유일한 것이다.

1-4,ㄱ) 其心 擾亂 ㄴ尸> ... 身不調適 ㄴ尸> ... 奢摩他定 ㄹ 樂 尸 不多 ㄴ尸> ... 實 [如] 支 諸法 ㄹ 觀察 能 不 ㄴ尸>+ ㄹ / 其心을 擾亂하는 것과 ... 身不調適하는 것과... 奢摩他定을 즐기지 아니하는 것과... 實과 같이 諸法을 觀察하기가 能하지 아니한 것과입니다.<瑜伽10,4-,12>

ㄴ) 諸 歡喜事 ㄹ 作意思惟 ㄴ尸> 若 得 ㄴ尸 所 ㄹ 如 ㄴ尸> 道 ㄹ 修習 ㄴ尸>

尸人 若 極清淨道→ 及 果功德→ノ尸シ 證得ノ尸人ノ尸 是 [如]夫ノ
 下 名下 [爲]出世間 一切種清淨→ノヲ / 여러 歡喜事를 作意思惟
 하는 것과 혹 얻은 바와 같은 道를 修習하는 것과 혹 極清淨道와 및
 果功德이라고 하는 것을 證得하는 것 등 이 같은 것을 이룸하여 出世
 間 一切種의 清淨이라고 하는 것이다.<瑜伽31,18-,23>

‘ノ尸人’은 ‘홀과’로 읽히는 것으로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공동격(접속)조사
 ‘人/과’가 연결된 것이다. 이 예는 瑜伽에 몇 예가 더 나타난다.

1-5, 7) 又 煩惱道→ 後有業道→ノ尸 〔於〕現法七 中 已 永 斷絶ノ
 也 / 또 煩惱道와 後有業道라고 하는 것들은 現法 中에 이미 길이 斷
 絶하고<瑜伽31,15-,16>

‘→ノ尸 7/여 홀인’은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주제의 보조조사 ‘7/(으)니’이
 연결된 것이다. 예가 극히 드물어 이 한 예가 확인될 뿐이다.

1-6, 7) 或→ 如來シ 供養ノ白○今七 門シ 以→ノ尸カ○今 或→ 難思七
 布施門シ 以→ノ尸カ○今 / 혹은 如來를 供養하옵는 것의 門으로써 하
 기도 하며 혹은 難思의 布施門으로써 하기도 하며<華嚴17,4-10>

ㄴ) 或→ 邊呪語 四諦シ 說尸カ○今 或→ 善密語 四諦シ 說尸カ
 ○今 / 혹은 邊呪語로 四諦를 이르기도 하며 혹은 善密語로 四諦를
 이르기도 하며<華嚴20,8-,11>

ㄷ) 作樂ノ尸カ 亦→ 然七○下 / 作樂하는 이도 또한 그렇게 하시어
 <舊仁3,9-,14>

이 예들은 동명사어미 ‘-尸/리’ 다음에 보조조사 ‘カ/도’가 연결된 것이다.
 舊仁에선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조사가 연결되면 尸이 생략되는 경향이 있는
 데 이 한 예가 생략되지 않아 이 문헌에서 조사 앞에 尸이 쓰인 구체적인 예
 를 보여 준다.

이상에서 우리는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대격, 속격, 처격조사와 접속조사,

보조조사가 연결된 예를 보아 왔다. 이는 이 시대엔 동명사어미 尸의 쓰임이 15세기에 비하면 훨씬 생산적이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당시의 문법 전반에서 보면 한정된 범위에 쓰이고 있어서 이 동명사어미가 쇠퇴의 길에 접어 들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일례로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주격조사 ‘이/이’가 쓰인 예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尸 + 이’가 ‘소/리’로 축약된 데 말미암은 것으로 볼 수 있다.

1-7, 7) … 十恒沙七 鬼神王: [乃:] 至^二三趣七子: ^一 / …
 十恒沙의 鬼神王과 乃至는 三趣의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거니와
 <舊仁11,14-,18>

‘三趣七子: ^一 / 호리’는 ‘有七ナ: /잇견여’의 주어가 되므로 동명사어미와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이를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또는 접미사)의 결합으로 볼 수도 있게 하여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게 한다.

- ㄱ) 國土^二護^一 / 因緣^二 / 國土를 護할 바의 因緣을…
 <舊仁3,17-,18>
- ㄴ) 色: 如^二 / 受相行識: 如^一 / 色과 如하다고 하는 이와 受相行識과 如하다고 하는 이와<舊仁3,23-,25>
- ㄷ) 幻法: 幻化^二 / 名字 無七^一 / 幻法和 幻化라고 하는 것은 名字 없고<舊仁14,1-,4>
- ㄹ) 十八梵天: 六欲七 諸^二 / 天^一 / 十八梵天和 六欲의 모든 天이라고 하는 이도<舊仁3,4-,8>

여기서의 소는 동명사어미와 의존명사(또는 접미사) ‘이’의 결합이 분명한 것이어서 ㄱ)의 소를 동명사어미와 주격조사의 결합으로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이 석독구결들에선 이 ‘소’나 ‘禾/리’가 尸보다 더 많이 쓰이어 尸동명사어미가 밀려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다음은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올 조사가 생략된 예들이다.

2-1, ㄱ) 菩薩地 3 + 當ハ 說白ノ尸 [如]支ㄴㄱ ㄱㄱ ㄱ / 菩薩地에 반드시 이르
는 것과 같을 것이라고<瑜伽4,8-10>

ㄴ) 一ㄱ 塵七 中 3 + 示現ノㄱ 所ㄴㄴ尸 [如]支 / 한 티끌 가운데에 示現
한 바를 하는 것과 같이<華嚴15,13-,15>

ㄷ) 菩薩 ㄴ 衆生 ㄴ 化ノ尸 [爲]此 [若] ㄴㄴㄴ ㄴㄴㄴ ㄴ / 菩薩이 衆生을 敎
化하는 것이 이와 같다고 하시어<舊仁14,13-,16>

이는 동명사어미 -尸 다음에 현대어의 ‘같(如)-’에 해당하는 ‘[如]支ㄴ-/다
하-’가 온 예이다. 이 ‘[如]支ㄴ-’는 15세기국어의 예로 보아 주격(비교격)이
나 공동격을 지배할 것인데 그 표지를 보여주지 않는다. ‘[如]支ㄴ-’가 不定
格을 지배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2, ㄱ) 一切 世間 3 七 諸 ㄱ 天 3 魔 3 …… 阿修羅 3 ㄴㄴ尸 [等] ㄴㄴㄱ ㄴㄴ 3 / 一
切 世間の 모든 天과 魔와 …… 阿修羅라고 하는 것들 같은 것이다.
<華嚴8,16-,18>

ㄴ) 苦 3 樂 3 利 3 衰 3 ㄴㄴ尸 [等] ㄴㄴㄱ … 法 3 + / 苦와 樂과 利와 衰
라고 하는 것들과 같은 … 法에<華嚴18,8-,11>

ㄷ) 居士 ㄴㄴ尸 寶 3 蓋 3 法 3 淨名 3 ㄴㄴ尸 等 ㄴㄴㄱ 八百人 3 + / 居士
이신 寶와 蓋와 法과 淨名이라고 하는 것들과 같은 八百人에게
<舊仁2,24-3,3>

한문에서는 사물을 열거하고는 ‘等’으로 그것을 총괄한다. 15세기 국어에
서는 이 등자를 접미사 ‘-등’로 번역하였었다. 그러나 고려시대의 석독구결
에선 이 등자를 용언으로 보아 ‘[等] ㄴㄴ/다하-’로 訓讀하였다. ‘[等] ㄴㄴ-’와
‘[如]支ㄴ-’는 국어로서는 형태, 의미, 기능이 일치하는 용언으로 격표지를
보여 주지 않는 점에서도 일치한다. 여기서 한 가지 添言할 것은 이 ‘等’의
석독표시를 華嚴에서는 ‘[等] ㄴㄴ-’로 하여 全訓讀을 표시하였는데 舊仁에선
예 ㄷ)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접미사 ‘ㄴ/하-’만을 기입하여 ‘等ㄴ-’로 한
점이다.

- 2-3, ㄱ) [於]諸定 ㄴ + 隨 ㄹ 愛味 ㄹ 尸 [有] 4 ㄴ / 여러 定에 따라서 愛味함을 두며 <瑜伽9,11-,18>
- ㄴ) 疑 ㄹ 隨 逐 ㄹ 尸 有 ㄴ ㄴ / 疑心이 隨逐함이 있으며 <瑜伽11,14-,21>
- ㄷ) 又 [於]廣大 ㄴ ㄱ 淨天生 ㄴ 處 ㄴ + 沈沒 ㄹ 尸 无有 ㄴ / 또 廣大한 淨天生의 處에 沈沒함이 있지 않으며 <瑜伽15,14-,17>

15세기엔 有자의 訓이 주로 ‘잇-’이었다.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有]4/ 두-와 ‘有 ㄴ/잇-’의 두 훈이 나타나는데 ‘두-’로 혼독되는 경우가 더 많다. 후대의 문법에선 ‘두-’는 대격을 지배하고 ‘잇-’은 주격을 지배하지만 석독구결에서는 不定格으로 나타난다. ㄷ)의 无有는 한자어이지만 기능상 존재동사로 보았다. 无자만으로는 否定辭이다.

- 2-4, ㄱ) 樹 ㄹ 葉茂 ㄴ ㄱ ㄴ 見 當願衆生 定 ㄴ 解脫 ㄴ ㄴ ㄴ 以 ㄴ ㄴ 而 ㄴ 蔭映 ㄹ 尸 爲 ㄴ ㄴ ㄴ /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면 마땅히 원하기를 衆生은 定과 解脫이라고 하는 것들로써 蔭映하는 것을 삼을지이다.
<華嚴5,9-,12>

‘蔭映 ㄹ 尸’이 동명사구로 ‘그림자를 만들음’의 뜻이다. ‘爲 ㄴ ㄴ ㄴ/삼는서’의 ‘ㄴ’자는 ‘三/삼’자의 오기로 보았다.⁵⁾ 이 ‘爲 ㄴ/삼-’은 대격을 지배할 것으로 예측되지만 그 조사가 생략되었다.

- 2-5, ㄱ) 大師 ㄹ 善 ㄴ 爲 ㄹ 俗正法 ㄴ 開示 尸 已 ㄴ ㄴ ㄴ ㄴ / 大師가 善하게 (그를) 위하여 俗正法을 開示하기를 이미 하고서 <瑜伽3,5-,11>
- ㄴ) 聖諦現觀 ㄴ + 入 尸 已 ㄴ ㄴ ㄴ ㄴ / 聖諦現觀에 들기를 이미 하거늘 <瑜伽28,9-,15>
- ㄷ) 大功徳 ㄴ 說 尸 已 ㄴ ㄴ ㄴ / 大功徳을 이르기를 이미 하고 <華嚴8,20-,24>
- ㄹ) 彼 ㄴ 見 ㄹ 尸 已 ㄴ ㄴ ㄴ 皆 ㄴ 調伏 ㄴ ㄴ ㄴ ㄴ / 저이에게 보이기를 이미 하고 모두 調伏시키며 <華嚴20,4-,7>

5) 이 견해는 口訣學會의 月例 講讀會에서 논의된 것에 따른 것이다.

고려시대의 佛家에선 ‘已 ㅅ/이피사(서) ㅎ-(이미 끝내다)’가 동명사어미 -ㅍ을 지배하는 표현이 慣用化되어 있었던 듯 위와 같은 표현이 瑜伽와 華嚴에 이밖에도 더 나타난다. 현대어로는 동명사어미 다음에 대격이 나타나야 할 자리이지만 격표시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역시 不定格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으로 동명사어미와 격의 관계를 마치고 다음은 ㅍ동명사형이 체언을 수식하는 예들을 보기로 한다.

3-1, ㄱ) 思擇力 ㅅ 攝 ㅅ 不淨想 ㅅ 中 ㅅ + / 思擇力으로 攝하는 不淨想 가운데 <瑜伽9,19-21>

ㄴ) 此 ㅅ 三界 ㅅ 中 ㅅ ㅅ 衆 ㅅ ㅅ 十二大衆 ㅅ / 이 三界 中에 있는 衆이라고 하는 十二大衆은 <舊仁2,7-9>

ㄷ) 舍衛國主 ㅅ ㅅ ㅅ 波斯匿王 ㅅ / 舍衛國主이신 波斯匿王이 <舊仁2,24-3,3>

이들은 ㅍ동명사가 뒤에 이어지는 체언을 수식하는 예들이다. 이 修飾構造는 명사가 명사를 수식하는 국어의 문법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다. 이 표현법이 굳어져 ㅍ동명사는 冠形語로 발달하고 ‘-ㅍ/ㄹ’어미는 관형형어미로 발달한다. 이 석독구결들에선 ㅍ동명사가 격조사를 취하여 동명사어미로 쓰이고 있고 그 사용빈도도 높으므로 관형형어미로 보지 않고 동명사어미로 본 것이다.

이 동명사어미는 의존명사를 수식하여 다양한 표현법을 만들어 낸다.

3-2, ㄱ) 對治 ㅅ ㅅ 所 ㅅ 法 有 ㅅ ㅅ ㅅ ㅅ / 對治할 바의 法이 있다는 것을 <瑜伽8,1-,4>

ㄴ) 恭敬 ㅅ ㅅ ㅅ 供養 ㅅ ㅅ ㅅ ㅅ 所 ㅅ ㅅ 得 ㅅ / 恭敬하며 供養하며 하는 바를 얻으며 <華嚴2,3-9>

ㄷ) 見 ㅅ ㅅ ㅅ 所 ㅅ ㅅ 無 ㅅ ㅅ ㅅ / 보는 바 없으시며 <舊仁15,15-,18>

所는 ‘바’로 훈독된다. ‘바’는 장소를 나타내는 자립명사였을 것이지만 이

시대에도 이미 의존명사로 문법화되어 추상적인 뜻을 나타낸다.

尸동명사는 의존명사 ‘ㄷ’를 수식하는 예가 많은데 이 ‘ㄷ’의 곡용에 따라 다양한 문법적 표현이 발달하였다.

3-3, 7) 彼 補特迦羅 佛 出世 白 佛 值 白 分 / 저 補特迦羅가 佛이 出世하시는 것을 만나오며<瑜伽2,23-3,5>

ㄴ) 心 3 + 解脫 佛 入 得 立 / 마음에 解脫하는 것을 얻을지이다.
<華嚴3,3-7>

ㄷ) 皆 七 無 7 1 3 7 1 7 佛 名 3 [爲] 諸 佛 七 觀 : 7 佛 1 分 / 다 無한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이름하여 諸佛의 觀이라고 하는 것이며
<舊仁15,8-,10>

‘尸/入/홀 돌’은尸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入/ㄷ’가 대격으로 쓰인 것이다. 이 ‘ㄷ’는 이들 석독구결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의존명사인데 ‘1 7/다하-(如)’와 같은 어원을 가진 단어로 믿어진다. 그 의미는 ‘꼭 같은 것’, ‘틀림없는 것’, ‘바로 그것’과 같이 해석되어 현대국어의 ‘것’보다는 강조의 뜻이 강한 의존명사이다. 이에 대립되는 의존명사는 ‘스’인데 이는 객관적 사실이나 중립적 의미를 갖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尸/入’은 ‘...하는 바로 그것’으로 해석되어 ‘ㄷ’의 기본적인 의미를 가장 잘 보여 주는 형태이다.

이 형태가 특수한 표현으로 굳어진 것이 다음의 ‘- 尸 入 7 /-일 돌 하-’이다.

ㄹ) 當 八 知 7 七 法 7 所 對 治 7 尸 [爲] 入 7 佛 1 7 7 / 반드시 알아야 한다. 七法이 所對治가 되는 것임을.<瑜伽10,2-,12>

ㄻ) 若 [於] 王 7 見 當 願 衆 生 得 3 亦 法 王 7 尸 [爲] 入 7 佛 7 7 正 法 7 恒 轉 7 立 / 만약 王을 본다면 반드시 願하기를 衆生은 法王될 수 있도록 正法을 恒轉하여지이다.<華嚴6,19-,24>

ㄷ) [是] 7 月 光 王 7 …… 四 住 7 開 士 7 尸 [爲] 7 佛 1 7 7 我 7 八 住 7 菩 薩 7 尸 [爲] 7 佛 1 7 佛 7 7 7 …… / 이 月光王은…… 四住의 開士가 되었었거늘 나는 八住의 菩薩이 되어 있었사움기로<舊仁11,20-,22>

이 釋讀口訣들에선 ‘-ㄱ 入 ㅂ-/-일 돌 ㅎ-’가 ‘-이(주격) 되다’의 뜻으로 널리 쓰였다. 당시에는 ‘되다’라는 동사가 없었던 듯 이 ‘-ㄱ 入 ㅂ-/-일 돌 ㅎ-’가 그 뜻을 나타내는 관용구로 쓰였다. 이 구성에서의 ‘ㄱ/ㅍ’는 ‘바로 그것’ 또는 ‘틀림 없는 그것’의 뜻으로 ‘명사+ -ㄱ/일’에 쓰인 명사와 동일한 것임을 나타낸다. 즉 ‘NP₁은 NP₂인 바로 그것(ㄱ)임’이므로 ‘NP₂인 바로 그것임’이 현대국어로는 ‘되다’의 뜻이 되는 것이다. ‘ㅂ-’는 ‘NP₂인 바로 그것임’의 구를 용언화하는 구실을 할 뿐이다. 이는 15세기의 동사 ‘ㄷ뵈(-> ㄷ외-’가 고려시대 중반 이후에 造語된 단어일 것임을 말하여 준다. 위의 ㄷ)~ㄷ)에서는 爲자가 不讀字로 쓰였다. 이로 인하여 ‘-ㄱ 入’과 ‘入 ㅂ’ 사이에 爲자의 혼을 나타내는 어떤 형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다음의 예들은 爲자가 없이 ‘-ㄱ 入 ㅂ-’가 쓰였으므로 그 가능성이 배제한다.

- ㄷ) 信 ㅂ …… 橋慢 ㅂ 滅除 ㅂ 恭敬 ㅂ 本 ㅂ 入 ㅂ ㅂ ㅂ ㅂ / 信은 …… 橋慢을 滅除하고 恭敬하는 本이 되는 것이며<華嚴9,24-10,3>
- ㄹ) 歌舞 ㅂ 談說 ㅂ 衆 欣 ㅂ 所 ㅂ 入 ㅂ ㅂ / 歌舞하며 談說하며 하되 모두가 즐길바가 되며<華嚴19,4-7>

이 예들은 華嚴에만 나타나는 것이어서 그 예가 한정된 감이 있지만 ‘-ㄱ 入 ㅂ-’라는 어형이 ‘되다’라는 뜻으로 쓰임을 직접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어서 가치가 있다.

華嚴에는 ‘-ㄱ 入 ㅂ-’의 ‘入 ㅂ’을 ‘ㅂ’으로 표현한 듯한 예가 나타난다.

- ㅅ) 諸 ㅂ 佛 矣 護念 ㅂ 勿 ㅂ 所 ㅂ ㅂ [爲] ㅂ ㅂ ㅂ ㅂ / 모든 부처의 護念 하시을 바가 되는 것이며<華嚴11,1-4>

의 예가 그것이다. 그러나 이에 이어지는 구는 이 구의 내용을 받아서 전제로 삼고 있는데

ㄸ) 若 諸₁ 佛₂ 護念₃ 勿₄ 尸₅ 所₆ 尸₇ [爲] 入₈ 尸₉ 尸₁₀ / 만약 모든 부처의 護念하시는 바가 된다면<華嚴11,1-4>

과 같이 ‘入₈’로 되어 있다. 이로 보면 ㄸ)의 ‘入₇’은 ‘入₈’의 誤記임을 알 수 있다. 華嚴에는 간혹 이러한 誤記가 있으므로 이용상 주의를 요한다.

ㄷ) 諸₁ 佛₂ 所₃ 憶念₄ 勿₅ 尸₆ [爲] 入₇ 尸₈ 尸₉ / 모든 부처의 所憶念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며<華嚴12,17-20>

ㄹ) 或₁ 尸₂ 良藥₃ : 衆₄ 寶藏₅ : 尸₆ [爲] 入₇ 尸₈ / 혹은 良藥과 많은 寶藏과 하는 것들이 되며<華嚴19,8-,11>

이 예들은 ‘-尸₁₀ 入₈ 尸₉’가 문맥에 따라서는 ‘尸₆ 入₇ 尸₈’로 쓰여도 ‘되다’의 뜻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ㅎ) 或 國王₁ : 及₂ 七 大臣₃ 尸₄ [爲] 入₅ 尸₆ 尸₇ 或₈ 尸₉ 良醫₁₀ 尸₁₁ 入₁₂ 尸₁₃ 作₁₄ 尸₁₅ 尸₁₆ 衆₁₇ 論₁₈ 尸₁₉ 善₂₀ 尸₂₁ 尸₂₂ 或₂₃ 尸₂₄ [於] 曠野₂₅ 尸₂₆ 大樹₂₇ 尸₂₈ 入₂₉ 尸₃₀ 作₃₁ 尸₃₂ 尸₃₃ 尸₃₄ 或₃₅ 尸₃₆ 良藥₃₇ : 衆₃₈ 寶藏₃₉ : 尸₄₀ [爲] 入₄₁ 尸₄₂ 尸₄₃ 或₄₄ 尸₄₅ 寶珠₄₆ 尸₄₇ 入₄₈ 尸₄₉ 作₅₀ 尸₅₁ 尸₅₂ / 혹은 國王과 및 大臣이 되며 혹은 良醫가 되어서 많은 論을 잘하며 혹은 曠野에 大樹가 되며 혹은 良藥과 많은 寶藏과 하는 것이 되며 혹은 寶珠가 되어서<華嚴19,8-11>

이는 ‘-尸₁₀ 入₈ 尸₉’, ‘尸₆ 入₇ 尸₈’와 아울러 ‘-尸₁₁ 入₉ 尸₁₀ 作₁₁’도 ‘되다’의 뜻이 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되다’의 뜻을 나타내는 것에서 觀念形인 ‘-尸’과 ‘同’의 뜻인 의존명사 ‘入/ㄹ’의 뜻을 분명하게 파악할 수가 있다.

다음은 ‘-尸 入/ㄹ ㄷ’가 因果關係 표현에 쓰이는 예이다.

3-4, 7) 樂₁ 尸₂ 正法₃ 尸₄ 聞₅ 尸₆ 尸₇ 故₈ 尸₉ [於] 時時₁₀ 尸₁₁ 中₁₂ 尸₁₃ 尸₁₄ 慙₁₅ 尸₁₆ 尸₁₇ 請₁₈ 問₁₉ 尸₂₀ / 즐겨 正法을 들으므로 그때그때에 慙히 請問하며<瑜伽15,21-16,1>

ㄴ) 菩提心₁ 尸₂ 功德₃ 尸₄ 顯示₅ 尸₆ [欲] 尸₇ 尸₈ 尸₉ 故₁₀ 尸₁₁ 尸₁₂ 尸₁₃ 以₁₄ 尸₁₅ 問₁₆ 尸₁₇

曰ニフ / 菩提心の 功徳을 顯示하고자 하시므로 偈로써 ... 물어 이르
시되<華嚴8,20-,24>

ㄷ) 佛佛ニ [於]世十 出現ソニ下 衆生シ 爲入ソニフのニ 故ノ / 佛佛이
世에 出現하시어 衆生을 爲하고자 하시므로<舊仁14,4-,7>

이들은 尸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入/ㄷ’에 조격조사 ‘니/로’가 연결된 것이
다. 이 형태는 여러 의미로 쓰일 수 있지만 석독구결에선 因果關係 表現에
쓰여 原因의 뜻을 나타내는 형태로 굳어졌다. 이는 아마도 신라시대부터 내
려오는 것으로 믿어지는데 吏讀文에선 이와 일치하는 ‘等以/ㄷ로’가 쓰였다.
그러나 13세기 후반의 順讀口訣에선 ‘ㄷ로’의 쓰임은 줄어들고 주로 ‘ソ入
大/호란대’가 쓰였다. 高麗歌謠에도 ‘호란대’의 형태가 쓰이는 것을 보면 고려
후기에는 ‘ㄷ로’가 ‘호란대’로 대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이 15세기 諺
解文獻에선 ‘홀씨’로 교체되었다. 우리는 이로써 인과관계 표현법이 변화해
온 과정을 이해할 수가 있고 이 ‘入니/ㄷ로’와 吏讀의 ‘等以/ㄷ로’ 형이 고형
에 속하는 것임을 알게 된다.

3-5, 7) 廣ニ 說尸入 當ハ 知シ 二十種 有七ト / 넓게 말하면 반드시 알
아야 한다. 二十種이 있다는 것을.<瑜伽4,8-10>

ㄴ) 若七 諸ト 菩薩ニ 善支 其 心シ 用ソヒ尸入 則支 一切勝妙功徳シ
獲ヒ牙四 / 만약 모든菩薩이 좋하게 그 마음을 쓴다면 一切勝妙功徳
을 얻을 것이다.<華嚴2,12-,17>

ㄷ) 若七 言ニフ 無七ソニロ牙尸のト [者] 智ト 二リト [應]七ソト 不
トロシク / 만약 이르시기를 없다 하실 것 같으면 智는 틀림없이 들입
이 아닌 것이며<舊仁14,18-,20>

이 ‘-尸 入 / (으)리 든’은 의존명사 ‘ㄷ’에 주체화첨사 ‘(으)니’이 결합된 것
인데 이것이 조건법(가정법) 표현으로 발달하여 문맥상 ‘하면’으로 번역된다.
15세기에는 ‘-거든’, ‘-면’과 같은 형태가 조건이나 가정을 표현하였지만 석독
구결에선 이 ‘-尸 入 / (으)리 든’이 그 표현을 하고 있다. 신라시대에는 ‘-

(으)ㄴ'만으로도 그 표현을 하여 新羅華嚴經寫經造成記에선

若 大小便爲哉 若 臥宿哉 若 食喫哉 爲者 香水 用尔 沐浴令只但 / 만약 大小便을 하거나 누워 자거나 먹고 마시거나 하면 香수를 써서 沐浴시키어야

의 ‘爲者’가 조건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 이 者는 ‘-ㄴ’을 표기한 것으로 주제를 나타내는 데에 주로 쓰인 보조조사였다.⁶⁾ ‘-尸 ㄴ /-(으)ㄴ’에서의 ‘ㄴ /-(으)ㄴ’도 이러한 기능을 이어 받은 것이다.

3-6, 7) 方廣- 希法- 及 與七 論議-尸尸 分別-ㄴㄴㄴ尸尸尸 / 方廣과 希法과 및 論議이라고 하는 것들을 分別(하고)하여야 하실 것이다.

<瑜伽2,23-3,5>

ㄴ) 增長廣大-ㄴ 有七 所七 功德尸 證得-ㄴㄴㄴ尸尸尸 / 增長廣大한 所 有한 功德을 證得(하고)하여야 할 것이다.<瑜伽3,5-11>

이는 ‘-尸尸尸 /-ㄴ’의 형태로 尸동명사가 수식어로 쓰인 것이다. ‘尸尸尸’는 의존명사 ‘ㄴ’에 계사가 연결된 것이 축약된 것이다. 관념형어미인 ‘-尸’과 강세의 뜻을 가진 ‘ㄴ’이 결합되었으므로 當爲나 必然의 뜻을 나타내어 ‘하여야 한다’로 해석된다.

3-7, 7) 是 [如] ㄴㄴㄴ 名下 [爲] 誓亦 下劣-ㄴ 形相尸 受尸尸尸 觀察-尸尸尸尸尸 / 이 같은 것을 이름하여 맹세하기를 下劣한 形相을 受하는 것을 觀察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며<瑜伽16,16-22>

ㄴ) 不美食尸 得 當願衆生 諸 三昧七 味尸 獲得-尸尸 不-尸尸尸尸尸 莫七七立 / 不美食을 얻는다면 반드시 願하기를 衆生은 모든 三昧의 맛을 獲得하지 못하는 것이 없어야 한다<華嚴7,14-17>

ㄴ) 謂-ㄴ 非 ㄴㄴㄴ 二諦尸 一-ㄴㄴㄴ-尸尸尸 / 말할 것이 아니다. 二諦가 一이라고 하는 것을<舊仁15,4>

6) 拙稿(1991), 新羅 華嚴經寫經 造成記에 대한 語學的 考察, 「東洋學」21, 檀國大東洋學研究所. 참조.

어미 ‘-尸丁/르명’은 기원적으로 ‘-尸(동명사어미) + ㄷ(의존명사) + 영(접속어미)’가 결합된 것이 굳어져 어미로 발달한 것으로 믿어지는 것이다. ‘-尸丁/홀명’은 대체로 ‘하는 것이라고’로 해석되는데 그 구체적인 기능은 앞으로 좀더 고구해야 될 것이다.

3-8, 7) 幻師 幻法 見尸矣七〇} / 幻師가 幻法을 보는 것과 같아
 <舊仁15,8-10>

이는 尸동명사 다음에 ‘-矣七/뒹’이 연결된 것이다. ‘矣七/뒹’은 15세기의 ‘뒹’의 先代形이다. ‘뒹’은 ‘同’의 의미이어서 ‘다하-(如)’와 기원을 같이 하는 것이니 의존명사 ‘ㄷ’에 접미사 ‘-시’이 연결되어 이루어진 형태이다. 이 ‘矣七/뒹’은 동사어간에 직접 연결되는 접미사로 쓰이기도 한다.

3-9, 7) 有餘依涅槃界 依止〇} 九法 轉尸ム 涅槃 首 爲 有七〇
 / 有餘依涅槃界를 依止하여 九法이 轉함에 있어 涅槃을 머리로 삼음이 있으며<瑜伽4,19-5,1>

ㄴ) 出家尸ム 礙尸 無 〇} 心 〇} + 解脫尸入 得 〇} 立 / 出家함에 있어서는 막힘이 없어 마음에 解脫함을 얻어지이다.<華嚴3,3-7>

ㄷ) 法王 〇} …… 大衆 〇} 覆蓋 〇} 白尸ム 量 無 〇} 七 〇} 光 〇} 〇} 〇} / 法王은 …… 大衆을 覆蓋함에 있어 量 없는 빛으로 하시며<舊仁11,8-9>

ㄹ) 諸 〇} 行法 〇} 悉 〇} 散滅尸尸 〇} 歸尸尸 〇} 〇} 〇} 〇} 〇} / 모든 行法이 다 散滅하는 데에 돌아가는 것을 보아지이다.<華嚴4,1-4>

이 ‘尸ム/홀 디’는 尸동명사의 수식을 받는 의존명사 ‘ㄷ’에 처격조사 ‘익’가 연결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尸ム/홀 디’는 15세기에는 ‘호디’로 되어 前提의 기능을 하는 어미로 발달하였다. 그러나 여기서의 ‘尸ム/홀 디’는 처격의 의미가 살아 있어 ‘하는 데에 있어’로 해석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ㄹ)의 ‘尸尸 〇} /홀 디기’는 의존명사 ‘ㄷ’에 처격조사 ‘>+/익기’가 연결된 것이다. 처격의 ‘익’와 ‘익기’는 의미상 차이가 없으므로 수의적으로 교체될 수 있었음

을 보여 준다.

이상에서 尸동명사가 체언수식어로 쓰이는 예를 살펴보았다. 의존명사 ‘ㄷ’를 수식하는 예가 많이 나타나고 이것이 문법화되어 가는 과정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은 尸동명사형이 15세기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문법을 보여주는 것이다.

4-1, ㄱ) 此 十種七 生圓滿シ 名下 修瑜伽處所_{ㄴ尸} / 이 十種의 生圓滿을 이름하여 修瑜伽處所라고 하는 것이다.<瑜伽3,18-22>

ㄴ) 是シ 思所成慧 俱_ㄴ 光明想_ㄴ [之] 所對治_{ㄴ尸} / 이를 思所成慧를 갖춘 光明想의 所對治라고 하는 것이다.<瑜伽11,21-12,1>

ㄷ) 是故_ㄴ [於]彼_ㄴ 厭惡_ㄴ 호 而_ㄴ 住_{ㄴ尸} 不厭惡_ㄴ 非_ㄴ / 是故로 저에게 厭惡하여서 住하는 것이지 不厭惡하는 것이 아니다.<瑜伽20,16-23>

ㄹ) 又 復 堅固精進シ 發起_ㄴ 證得_ㄴ [爲欲]_{ㄴ尸} / 또 堅固精進을 發起하여 證得하고자 하는 것이다.<瑜伽22,10-16>

ㄱ) 菩薩_ㄴ 成佛_{ㄴ尸} 未_ㄴ 時_ㄴ 煩惱_ㄴ 爲_ㄴ 菩薩_ㄴ 成佛_ㄴ 未_ㄴ 時_ㄴ 煩惱_ㄴ 以_ㄴ 菩提_ㄴ 爲_ㄴ / 菩薩이 成佛하지 않은 때에 菩提로써 煩惱를 삼는 것이지 菩薩이 成佛한 때에는 煩惱로써 (반드시) 菩提를 삼게 되는 것이다.<舊仁15,18-20>

‘_{ㄴ尸}/홀여’는 尸동명사 다음에 종결어미 ‘-ㄴ/여’가 와서 문장을 종결한 것이다. 명사 다음에는 繫辭가 오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가 오는 것이 국어의 문법인데 이 석독구결에선 동명사어미 다음에 계사가 없이 직접 종결어미가 오는 特異함을 보여준다. ‘-ㄴ/여’가 並列接續助詞로 쓰이는 것도 이 어미의 이러한 특성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瑜伽에 주로 쓰였는데 ㄱ)에선 舊仁에도 쓰인 예를 보여주므로 이 시대 전반에 걸친 문법임을 알 수 있다. ㄷ)과 ㄱ)의 예는 이 어미가 접속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종결어미로 끊을 수도 있는 것이어서 같은 기능을 가진 것으로 다룬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다.

5-1, 7) 善不善法 - 有無罪 - 廣 說 乃 ; 至 諸緣生法 - 乃 / 善不善法과 有無罪와 넓게 말하면 諸緣生法과 하는 것들에 이르기까지를 <瑜伽2,23-3,5>

ㄴ) 文殊師利菩薩 問 ; 言 佛子 ; 菩薩 [云] 何 無過失身語意業 得 / 文殊師利菩薩께 물어 말하시되 佛子야 菩薩은 어떻게 하여야 無過失身語意業을 얻으며 <華嚴1,3-10>

ㄷ) 偈 以 ; 賢首菩薩 問 ; 曰 我 今 清淨行 說 / 偈로써 賢首菩薩께 물어 말하시되 나는 이제 이미 …… 清淨行을 說한 것이다. <華嚴8,20-,24>

ㄹ) 偈 以 ; 答 ; 曰 善勿 仁者 ; / 偈로써 答하여 말하시되 훌륭하군요 仁者여 <華嚴9,1-,5>

ㄹ) 舍衛國主 波斯匿王 名 曰 月光 ; / 舍衛國主이실 波斯匿王이, 이름으로 말하면 月光이라고 하옵는 분이… <舊仁2,24-,3,3>

ㅁ) 大王 復 起 ; 作禮 佛 白 ; 言 …… / 大王은 또한 일어나 作禮하옵고 부처께 사죄어 이르시기를 …… <舊仁3,22-,23>

ㅂ) 大衆 …… 謂言 四無所畏 ; 法身 ; 大覺世尊 / 大衆은 …… 謂言하되 四無所畏이고 …… 法身이고 하신 大覺世尊은 … <舊仁2,19-,23>

이 예들은 說, 問言, 問曰, 答曰, 名曰, 白言, 謂言 등 話法動詞에 尸동명사어미가 연결된 것이다. 이 동명사형은 문맥에 따라 ‘하면’, ‘하기를’, ‘하되’ 등으로 해석되기도 하고 15세기의 ‘닐은’의 경우처럼 ‘이른 바’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이 동명사형은 부사적, 내지는 접속어미와 같이 쓰이는데 話法의 前提를 나타내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것이 동명사형의 본래적인 성격에서 온 표현인지 어떤 조사의 생략에 의한 것인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동명사의 不定格的인 용법이 이러한 표현을 낳게 한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15세기 국어에는 ‘닐은’, ‘굴은’과 같은 -ㄴ동명사형은 있으나 -ㄹ동명사형은 없는데 이 釋讀口訣들에서는 ‘謂ㄱ/닐은’과 같은 ‘-ㄱ/(으)ㄴ’동명사형과 함께 이 ‘-ㄱ/ㄹ’동명사형도 쓰이고 있는 것이다. 이 시대에 동명사형의 사용범위가

넓었음을 보여 주는 예이다.

5-2, ㄱ) 是 思_尸入_尸 作_尸나_尸 我_尸 …… 定自在性_尸 證_尸 [應] _尸 7 ㄱ 7 ㄱ 7 ㄱ 7 ㄱ / 이 생각하는 것을 짓기를(짓되) 나는…… 定自在性이라고 하는 것들을 證明해야 하겠구나 하여<瑜伽16,9-18>

ㄴ) 便_尸 自_尸 思_尸 惟_尸나_尸 我_尸 已_尸 ; 心_尸 一境性_尸 證_尸 得_尸 7 ㄱ 7 ㄱ 7 ㄱ 7 ㄱ / 곧 스스로 思惟하되(하기를) 나는 이미 心一境性을 證得한 것이로구나 하여<瑜伽23,15-23>

앞 4-1, ㄴ)의 ‘謂言_尸나_尸’은 話法動詞에 동명사형 ‘_尸나_尸/하_尸결’이 연결된 것인데 위의 예들은 思惟動詞에도 이 동명사형어미가 연결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을 표현할 때 그 전제를 하기 위하여 尸동명사형이 쓰인 것이어서 4-1)의 예와 같은 표현법에서 온 것으로 설명된다.

5-3, ㄱ) 是 [如] 支 精勤_尸 如理作意_尸 入_尸 乃_尸 ; 得_尸 名_尸 下 [爲] 出家之想_尸 及_尸 七 沙門相_尸 入_尸 乃_尸 / 이와 같이 精勤하게 如理作意하는 것을 이름하여 出家之想이라 할 수 있으며, 沙門相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瑜伽18,15-19>

ㄴ) 請問_尸 依_尸 7 ㄱ 7 ㄱ 7 ㄱ 7 ㄱ 故_尸 昔_尸 聞_尸 白_尸 未_尸 ㄴ 7 ㄱ 7 ㄱ 7 ㄱ 7 ㄱ 甚深 法義_尸 聞_尸 分 / 請問을 依하기 때문에 옛날에 듣자옵지 못하였었구나 하는 甚深法義를 들으며<瑜伽7,2-6>

ㄱ)의 ‘得_尸’은 ‘시를’로 읽히는 것으로 15세기국어의 ‘시러’와 같이 可能의 뜻을 나타낸다. 따라서 ‘得_尸 名_尸 下/시를 일홈하’는 15세기국어의 ‘시러 일홈하’와 같은 것이어서 ‘이름할 수 있어’로 해석된다. ‘得_尸’이 ‘名_尸 下’와 함께 쓰였으므로 尸동명사어미를 화법동사의 전제표현에 사용한 것으로 보기 쉽지만 여기서는 ‘名_尸 下’의 앞에 쓰이어 그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前提로는 볼 수 없다. 이는 尸동명사형의 특수한 용법을 보여 주는 것인데 ‘得_尸’이 不定格의 동명사형이어서 부사어로 쓰일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성격의 표현이 ㄴ)의 ‘昔_尸’이다. 그러나 昔_尸이 부사어로 쓰였다는 점에서는 공통성

이 있지만 ‘昔/네’가 국어에서는 명사란 점에서 차이가 있다. 昔 다음에 계사 ‘-니/이-’가 생략된 것으로 보아야 ㄱ)의 得尸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뒷받침을 받아야 할 예이다.

ㄷ) [於]一切法 3 + 自在尸 無不_ㄴ尸_ㄷ尸_ㄴ尸 而_ㄴ 衆生_ㄴ 第二 導師 ㄴ
尸 [爲]入_ㄴ尸_ㄴ去_ㄴナ_ㄴセ_ㄴ | / 一切法에 自在하지 못함이 없어서 衆生の
第二 導師가 (반드시) 되느니라.<華嚴2,12-17>

‘無不_ㄴ尸_ㄷ尸_ㄴ尸/홀명 홀’의 ‘尸/홀’이尸동명사형으로 주목되는 것이다. 뒤에 이어지는 ‘而_ㄴ’는 아직 그 독법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문맥의 해석에서는 무시해도 좋은 것이다. ‘尸/홀’ 다음에 ‘衆生_ㄴ’ 이하의 句가 이어지는 것으로 보아야 이들 석독구결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尸’은 ‘-어 서’로 해석된다. 이는 이 동명사형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니 결국 이 ‘尸’도 5-3ㄱ)의 동명사형과 같이 부사어로 쓰인 것이 되어 같은 문법에서 나온 것임을 말하여 준다. 이 5-3)의 예들로 볼 때 5-1)과 5-2)에서尸동명사형이 전제의 뜻으로 쓰인 것은 그것이 話法動詞나 思惟動詞와 결합된 데서 온 것이지만 그 근원은 5-3)과 같이尸동명사형이 부사어로 쓰이는 데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다.

다음은 否定法에 쓰인尸동명사어미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7)

6-1, ㄱ) 他_ㄴ 引_ㄴ 3 [於]已_ㄴ 3 信_ㄴ [令] ㄴ [爲]入_ㄴ尸_ㄴ 不_ㄴ多_ㄴ 3 / 남을 끌어
들여 자기의 것을 믿게 하고자 하지 않으며<瑜伽4,15-19>

ㄴ) 衆生_ㄴ 隨_ㄴ 住_ㄴ 3 亦 恒_ㄴ 捨離尸 不_ㄴ 3 3 / 衆生을 따라 住하여서
항상 捨離하지 않으며<華嚴2,12-17>

ㄱ)에서는 ‘不_ㄴ多_ㄴ-/안들_ㄴ’가 ‘信_ㄴ [令] ㄴ [爲]入_ㄴ尸/信_ㄴ ㄴ’이과 홀’의 동

7) 이 시대의 否定法에 대하여는 ‘拙稿(1977), 國語 否定法の 發達, 『문법연구』 3, 塔出版社’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여기서는尸동명사에 관계된 것만 다루게 될 것이지만 그 동안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었으므로 보충을 하게 될 것이다.

명사구를 부정한 것이다. 이 釋讀口訣들에선 ‘不_ㄹ안_ㄹ’이 동사를 부정하고 ‘不_ㄹ안_디’가 명사를 부정하여 동사부정법과 명사부정법이 구별되었다. 이 시대는 -_ㄹ동명사와 -ㄱ/(으)ㄴ동명사가 있는데 전자는 동사부정법으로 부정하고 후자는 명사부정법으로 부정한다. ㄱ)은 _ㄹ동명사의 否定例이다. ㄴ)도 같은 부정법인데 否定辭 ‘不_ㄹ’은 ‘不_ㄹ’에서 ㄹ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華嚴에선 -_ㄹ동명사에 이어지는 ‘不_ㄹ’은 모두 ㄹ의 표기를 생략하여 ‘不_ㄹ’로만 표기하였다. 이 -_ㄹ동명사 부정형은 15세기에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아니_ㄹ 아니_ㄹ다(金三五,10)’와 ‘아_ㄹ 다투_ㄹ다(六祖上,47)’가 사전에 올라 있다. 전자를 직역하면 ‘아니함이 아니다.’이고 후자는 ‘아_ㄹ 다투_ㄹ다’로 해석되어 ‘_ㄹ’동명사어미의 본래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 예들은 ‘-_ㄹ/_ㄹ’동명사어미는 화석으로 가지고 있으나 부정사 ‘안_ㄹ’이나 ‘안_디’는 모두 ‘아니(ᄃᆞ-)’로 바뀌었음을 보여 준다. 본래 ‘_ㄹ’이나 ‘_디’는 의존명사 ‘_ㄷ’와 어원을 같이하는 접미사로 ‘_ㄷ’의 쓰임이 퇴화되면서 이 문법도 바뀐 것이다. 그리하여 _ㄹ동명사어미는 현대어로는 ‘함(하는 것)’이나 ‘-임(-인 것)’으로 해석되는 것인데 이 釋讀口訣의 ‘_ㄹ 不_ㄹ’은 부정법의 발달로 인하여 ‘하지 아니하-’로 해석하여야 한다.

ㄷ) 常_ㄹ 說法_ㄹ 白_ㄹ 尸_ㄹ 無_ㄹ 義_ㄹ ㄱ_ㄹ ㄴ_ㄹ 尸_ㄹ 非_ㄹ 多_ㄹ ㄴ_ㄹ ㄱ_ㄹ / 항상 說法하_ㄹ ㄱ_ㄹ 無_ㄹ 義_ㄹ 한 것을 하지 아니하시며<舊仁11,10-,11>

이는 앞에서 -_ㄹ 동명사의 부정사로 ‘不_ㄹ’이 쓰인 것에 대하여 ‘非_ㄹ’-/_ㄹ안_ㄹ ㄱ_ㄹ’이 쓰인 데서 차이가 있다. 不_ㄹ 非는 한문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국어에서는 둘 다 ‘안_ㄹ’로 읽히어 같은 動詞否定辭로 쓰였다. 이 ‘非_ㄹ’은 舊仁의 예인데 이 ‘非_ㄹ’-/_ㄹ안_ㄹ ㄱ_ㄹ’은 이 구결의 -_ㄹ동명사 부정의 예로서는 유일한 것이다.

ㄷ) 所對治_ㄹ 七 法_ㄹ 能_ㄹ 勝_ㄹ 三摩地_ㄹ 得_ㄹ 尸_ㄹ 不_ㄹ ㄴ_ㄹ ㄱ_ㄹ [令] ㄴ_ㄹ 有_ㄹ 七_ㄹ / 所對治의 法이 能_ㄹ 勝_ㄹ 三摩地를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
<瑜伽13,4-,7>

ㄱ) 證ノ尸 所シ [有]4尸 未ハソ1入ム 故ノ / 證明할 바를 갖지 아니 하였으므로<瑜伽18,1-6>

ㄱ)의 ‘不ハソ-’와 ㄱ)의 ‘未ハソ-’는 모두 ‘안독 ㅎ-’로 읽히는 것으로 추정된다. 不과 未 역시 漢文文法에서는 차이가 있으나 석독구결에선 ‘안독’으로 읽히고 -尸 동명사를 부정하는 점에서 같은 否定辭의 구실을 한다. 현대어로 해석할 때 ‘못하다’와 ‘아니하다’로 구별하는 것은 문맥에 따라 가능성 여부를 고려한 데서 온 차이이다.

ㄴ) 昔尸 聞白尸 未リソ→七1ノ1 甚深 法義シ 聞分 / 옛날에는 듣지 못하였었구나 하는 甚深 法義를 들으며<瑜伽7,2-8>

ㄴ) 菩薩リ 成佛ソ尸 未リソヒ七 時十 / 菩薩이 成佛하지 아니 한 때에 <舊仁15,18-,20>

여기에 쓰인 ‘未リソ-’는 ‘아니 ㅎ-’로 읽힌 것으로 추정된다. ‘안둘’ ‘안독’에 대하여 새로운 否定法의 출현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ㄷ) 當ハ 障辱シ 作ソリ尸 勿ノヲ7リ3七1ソ尸 矢1 / 만드시 障辱을 作하게 되지 않아야 하겠구나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瑜伽9,1-,3>

이는 ‘-尸 勿’로 나타난 否定法인데 ‘勿’는 음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釋讀口訣들의 문법에선 否定辭가 ‘아니’나 ‘못’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쓰였는데 勿도 그 중의 하나로 -尸 동명사의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ㄹ) 一切 聲門：緣覺：ノ今→ 動尸 不能リ矢ノ尸 所リ去ナカ七1 / 一切 聲門과 緣覺과 하는 것들이 동요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華嚴8,16-18>

이는 -尸 동명사의 부정사로 不能이 쓰인 것이다. ‘動尸’은 ‘뭉’로 훈독되어

직역하면 ‘동요함’이 될 것이지만 부정사 不能에 이어지므로 ‘동요하지’로 해석된다. 不能 뒤에 이어지는 ‘-니 勿尸/이디 홀’은 여기 처음 나타나는 형태로 현재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법을 보여 주는 것이다.

- ㄱ) 心 3 + 退轉尸 无 3 / 마음에 退轉함이 없어<瑜伽8,12-,19>
- ㄴ) 增尸 無少 亦니(니) 盡尸 無 7 [如] 支 / 增함이 없으며 또 다함이 없음과 같이<華嚴14,13-,14>
- ㄷ) 佛 7 出世 7 白尸 無 7 7 7 7 前 3 + / 佛이 出世하음이 없으신 前에<舊仁14,1-,4>

이는 한문의 無에 대응하는 ‘없다’가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15세기국어에 선 ‘없다’가 부정사의 기능을 보여 주지 않으나 이 석독구결들에선 부정사의 범주에 들어 -尸동명사를 지배한 것으로 파악된다. ㄴ)의 ‘盡尸 無 7’은 15세기에 ‘다옌 업슨’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순히 고려시대의 동명사형이 남은 것이 아니라 부정법적 표현이 화석화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ㄹ) 諸 7 三昧 7 味 7 獲得尸 不尸尸尸尸 莫 7 7 7 7 / 모든 三昧의 맛을 獲得하지 못하기도 하는 이가 없어지이다.<華嚴7,14-,17>

이는 한문의 否定辭 莫에 대응하는 국어의 ‘없-’이 부정사로 쓰인 것이다. 莫이 ‘莫 7/없-’으로 혼동되면 앞의 無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

- ㅎ) 閑斷尸 无 7 7 7 7 故尸 / 閑斷함이 无하므로<瑜伽7,2-,8>

이 ‘无 7-’는 음독되는 한자어인데도 ‘없-’과 마찬가지로 -尸동명사를 지배하는 否定辭로 쓰였다.

- 아) [於]一切 法 3 + 自在尸 無不尸尸尸尸 / 一切 法에 自在함이 無不하기도 하는<華嚴2,12-,17>

無不은 내용상 肯定인데 부정사와 같이 쓰였다. 尸동명사가 통사상 명사와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니 이에 준해서 보면 否定과 非否定의 경계는 애매한 면이 없지 않다. '自在尸'은 '自在~尸'에서 '~/하-'의 표기가 생략된 것이다.

否定辭 '不多/안둘', '不~안득', '不矣/안디'의 '둘, 득, 디'는 기원적으로는 동의 의미를 갖는 의존명사 '득'에서 온 것이다. 석독구결에서는 否定辭의 뒤에 오지만 15세기에는 동명사어미 '尸/리'이 쇠퇴하면서 그 자리로 올라 와서 15세기 국어의 부정법 '-디(둘) 아니하-'의 구조로 발달한다. 勿, 莫, 無는 국어에서 반드시 否定辭로 볼 수는 없다. 다만 이들이 부정사 '不/아니'와 같이 '-尸/리' 동명사를 지배한다는 점에 초점을 둔 것이다.

다음은 종래 알고 있는 중세국어 문법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尸동명사어미에 대하여 고구해 보기로 한다.

7-1, 7) [是] 卍 [如] 夫 三乘七 教시 開闡~; 亦 廣 卍 衆生시 度 卍 尸 少 量 卍
無 卍 劫 卍 + ~ 口 托 少 / 이와 같이 三乘의 教를 開闡하여서 널리 衆生을 濟度하는 것이며, 無量한 劫에 하는 것이며 <華嚴14,19-22>

ㄴ) 智慧 自在~; 思議尸 不~尸 少 說法七 言辭 有礙尸 無 少 / 智慧가 自在하여 思議하지 못할 것이며, 說法의 言辭가 有礙함이 없으며 <華嚴15,03-,07>

'-~尸 少', '~尸 少'는 尸가 접속어미 '-~/며' 앞에 온 점에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것이다. 舊仁에서는 다음과 같이 '시/리'로 나타나는 예가 있는데 같은 것으로 파악된다.

ㄷ) 花 卍 須彌山王 如 卍 나 卍 : 雲 如 卍 ~; 而 ~ 下 ~ 口 托 卍 少 / 꽃은 須彌山王 같은 것이니 구름 같이 내리는 것이며 <舊仁2,14-,17>

ㄹ) 法王 卍 心智 寂滅 ~ 卍 下 緣 無 七 卍 照 ~ 卍 口 托 卍 少 人 中 卍 卍 師 子 卍 衆 卍 爲 卍 卍 說 口 托 卍 卍 大 衆 卍 歡 喜 ~; 金花 卍 散 ~ 卍 口 托 卍 卍 少 卍 百 億 萬 土 卍 卍 六 大 動 ~ 卍 口 托 卍 卍 少 / 法王은 心智가 寂滅하시어 因緣

없이 照하시는 것이며 人中の 師子는 衆을 爲하여 說하시니 大衆은
歡喜하여 金花를 뿌리는 것이며 百億萬土는 六大震動하는 것이며
<舊仁11,9-,12>

이 ‘-로ㅅㅌㅅㅌ’, ‘-로ㅅㅌㅅㅌ’의 ‘ㄴ/리’도 ‘-ㅅㅌ’ 앞에 오는 점에서 ㄱ), ㄴ)의
尸과 같다. 舊仁의 이 ‘-ㅅㅌ’는 이제까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숙제였었는데
이 ‘-ㄴ’이 ‘-尸’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 확인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린
다. 우선 舊仁의 ‘-ㅅㅌ’가 ‘-로/고-’나 ‘-ㅌ/느-’의 뒤에 온다는 점에 주목해
보자. 華嚴에선 이 ‘-로/고-’나 ‘-ㅌ/느-’의 뒤에 ‘-尸ㅅㅌ’가 오는 예는 없으나
다음과 같이 주목할 만한 예들이 나타난다.

ㄱ) 菩薩ᄃ 右手ᄃ + 淨光ᄃ 放ᄃᄃᄃᄃ …… 一切 世ᄃ 照ᄃᄃ勿ᄃᄃᄃ 燈ᄃ
供養ᄃᄃᄃᄃᄃᄃ 又ᄃ 光明ᄃ 放ᄃᄃᄃᄃᄃᄃ / 菩薩은 右手에서 淨光을 放
射하되 …… 一切 世上을 비치실 燈을 供養하는 것이며 또 光明도 당
연히 放射한다.<華嚴16,04-,08>

ㄴ) 或ᄃ 有ᄃ 國土ᄃ 法ᄃ 知ᄃ 尸 不ᄃᄃᄃᄃᄃᄃ : [於ᄃ彼ᄃᄃᄃᄃ 爲ᄃᄃᄃ 妙
法藏ᄃ 說ᄃᄃᄃᄃᄃᄃ / 或 있다. 國土가 法을 알지 못하는 것이. 그들을
爲해서는 (분명) 妙法藏을 演說할 것이며<華嚴14,15-,18>

ㄱ)의 ‘-로ㅅㅌㅅㅌ/호고느며’는 舊仁의 ‘-로ㅅㅌㅅㅌㅌ/호고늘며’에서 ㄴ이 빠진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같은 표현으로 보인다. ㄴ)의 ‘-로ㅅㅌㅅㅌㅌ/고느리며’는
ㄴ 대신 ㅌ가 쓰인 점에서 차이가 있다. 여기서 舊仁의 ㄴ이 華嚴의 尸에 대
응함을 고려하면 동명사어미 尸과 ‘ㅌ/리’가 같은 기능을 한다는 사실에서 문
제는 풀리게 된다. 즉 ‘-尸ㅅㅌ’와 ‘-ㅅㅌ’의 尸과 ㄴ은 ‘-ㅌㅌ/리며’의 ‘ㅌ/리’와
같은 동명사어미인 것이다. ‘ㅌ/리’는 동명사어미 ‘ㄴ’에 접미사 ‘-이’가 연결된
형태이지만 ‘-尸’와 같은 기능을 하는 신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
동명사어미 ‘ㄴ’과 ‘리’는 기원적으로는 구별되었을 것이지만 ‘ㄴ’동명사어미의
기능이 쇠퇴해 가는 이 석독구결의 시대에는 거의 같은 기능을 하였으므로
서로 교체되어 쓰였던 것이다. 이 시대에는 ‘-ㅌㅌ’가 우세하게 쓰여 다양한

을 수 있는가가 문제였는데 4-1)과 7-1)의 예는 이 시대에 그러한 문법이 존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尸/리’을 관형형어미로 보고 ‘-口/고’를 의 존명사로 보지 않아도 이 의문법어미의 구조를 설명할 수 있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7-3, 7) 若七 能夫 [是] 〃 [如] 夫 衆生シ 調ノ物トシテ入シトヒ尸ヲ分 則 量
無七 神通七 力シ 現トヒヲ分 / 만약 能히 이와 같이 衆生을 調伏하
시는 것을 한다면 無量한 神通의 힘을 나타낼 것이며<華嚴13,1-4>

밀줄친 ‘-ヒ尸ヲ分’은 유일하게 발견되는 예이다. 이는 7-1, 2)의 ‘-ヒヲ分’에서 ‘尸/리’이 하나 더 들어간 것이다. ‘ヲ/리’에 동명사어미 ‘-尸/리’이 들어 있다면 이 ‘尸’는 ‘리’음의 ‘리’음을 重複하여 표기한 것이다. 아울러 이 ‘尸’는 ‘ヲ’가 동명사어미 ‘리’과 ‘이’의 결합형임을 은연중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이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리’은 모두 ‘尸’로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태도 동명사어미 ‘-尸’을 표기했다가 뒤에 ‘이’음이 와서 ‘리’가 되니까 ‘ヲ’를 또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에서 이 ‘-尸ヲ’의 중복표현은 단순한 음의 중복이 아니라 형태를 염두에 둔 중복표기라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단순한 ‘리’음의 중복표기는 고려시대의 順讀口訣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3. 尸의 그밖의 용법

이상으로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나오는 動名詞語尾 -尸에 대한 고찰은 마친 셈이다. 그러나 高麗時代의 석독구결에선 동명사어미라고 보기 어려운 尸의 용례들이 있다. 이에 대한 의견들이 분분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 성격을 밝혀야만 동명사어미 -尸의 성격도 분명해질 것이므로 여기서 그러한 형태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8-1, 7) 如來尸 諸 弟子衆 → [有] 4白ノ 所七 聖法シ… / 如來의 諸 弟子衆의 가진 바의 聖法을… <瑜伽3,18-22>

ㄴ) 必ハ 如來尸 地 } 十 到 ㄴナチカ / 반드시 如來의 땅에 이를 것이며
 <華嚴9,24-10,3>

여기 쓰인 ‘如來尸’은 문맥상 분명히 속격으로 쓰였다. 즉 ‘如來의’의 뜻이다. 이 용법은 瑜伽와 華嚴에만 나타나는데 ‘如來’의 속격형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 如來尸 弟子 ㄴ… / 如來의 弟子가… <瑜伽4,15-,19>
- 如來尸 諸 弟子衆 ㄴ… / 如來의 모든 弟子衆이… <瑜伽20,9-,16>
- 如來尸 僞美 ㄴ勿ㄴ尸 所… / 如來의 僞美하시을 바… <華嚴10,10-,13>
- 如來尸 家 } 十… / 如來의 집에… <華嚴11,5-,8>
- 如來尸 體 ㄴ… / 如來의 體가… <華嚴11,13-,18>
- 如來尸 實功德 ㄴ… / 如來의 實功德을… <華嚴15,24-16,3>
- 如來尸 十力 ㄴ 無所畏 ㄴ… / 如來의 十력과 無所畏와… <華嚴18,24-19,3>
- 如來尸 自在用 ㄴ勿ㄴㄴ ㄴ… / 如來의 自在用이신 것을… <華嚴18,24-19,3>

이상이 두 자료에 나타난 如來尸의 예들인데 모두 屬格으로 쓰인 것이다. 한편 如來의 속격형태로 예측되는 ‘如來ㄴ’ 또는 ‘如來>’의 형태는 두 자료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이 두 문헌에서는 ‘如來’의 속격 형태로 ‘ㄴ/ㄴ’이나 ‘>/>’가 쓰이지 않고 ‘尸/리’이 쓰임을 말한다.⁸⁾

如來 이외에 ‘尸/리’을 속격형태로 갖는 예는 다음과 같은 것이 더 발견된다.

- ㄷ) 或 ㄴㄴ 梵志尸 諸 威儀 ㄴ 現 ㄴ } ホ / 或은 梵志의 모든 威儀를 나타내어<華嚴19,21-24>
- ㄹ) 外尸 動 ㄴ } ㄴ尸 所 } 非 矣 ㄴ 說 四諦 / 外人의 움직이게 할 바 없게 (外人이 변동 못하게) 四諦를 說하며<華嚴20,8-,11>

8) 舊仁에는 ‘如來尸’의 속격형태는 나타나지 않는다. 대신 ‘如來ㄴ 三業 ㄴ <11,8>’에서 ‘ㄴ/ㄴ’의 속격형태를 보여 준다. 앞의 2 자료의 예들로 볼 때 이는 新形으로 보인다.

ㄷ)의 梵志는 佛教修行의 4期 가운데 제1단계에 있는 修行者이므로 尊者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그 속격형태는 ‘>/이,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격형태로 尸이 쓰인 것은 이 차자의 음가가 ‘ㅅ’음이 아님을 말하는 것이다.⁹⁾ ㄹ)의 ‘外’는 내용상 外人(他人)을 가리킨다. 이도 梵志와 같은 非尊稱의 有情 體言이다. 역시 그 속격은 ‘>/이,의’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尸/ㄹ’이 속격형태로 쓰이는 것은 현재로서는 밝히지 못한 역사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앞으로의 과제다.

ㄱ)~ㄹ)의 尸은 有情體言의 속격으로 쓰인 것이지만 다음의 예는 無情體言의 속격에도 쓰일 수 있음을 보여 준다.

ㄱ) 若七 水 ㄴ + 入 ㄴ 去 ㄱ 時 ㄱ 當願衆生 一切智 ㄴ + 入 ㄴ 호 三世尸
等 ㄴ ㄱ ㄴ ㄴ 知 ㄴ 호 / 만약 물에 들어갈 때에는 當然히 願하되 衆生
이 一切智에 들어가서 三世의 平等한 것을 알아지이다.<華嚴7,23>

‘三世尸 等 ㄴ ㄱ ㄴ ㄴ /三世ㄹ 等아 혼 둘’의 尸는 속격이어서 ‘三世의 平等한 것을’ 또는 ‘三世가 平等한 것을’로 해석된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尸는 폭넓게 속격으로 쓰였던 조사임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음을 ‘ㅅ’이라고 볼 수 없음도 분명해 진 것으로 믿는다. 여기서 우리는 고려시대의 국어에는 ‘ㄹ’, 또는 ‘ㄷ’이나 ‘ㄹ’ 음으로 표시되는 속격조사가 하나 더 있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다음의 예들은 같은 환경에 쓰인 尸이면서도 속격조사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ㄷ) 他 師教 ㄱ 謂 ㄱ 所 大師尸 鄒波陀耶 阿遮利耶 ㄴ ㄴ 호 ... 教授教誡 ㄴ 尸 ㄴ 依 ㄴ / 他 師教인 이른바 大師인 鄒波陀耶와 阿遮利耶와 하는 이들의 ... 教授教誡하는 것을 依持하여<25,4-,12>

9) 속격형태의 尸의 음가가 ‘ㅅ’이라는 가설은 口訣學會 月例講讀會에서 白斗鉉 교수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尸의 속격적 기능을 정확하게 파악한 견해이지만 尸에 ‘ㄹ’과 ‘ㅅ’의 두 대표음을 부여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서의 ‘大師尸’은 앞의 예들과 비슷한 환경에 쓰였지만 속격으로 볼 수 없다. ‘鄒波陀耶’와 ‘阿遮利耶’는 각각 和尚과 教授로 번역되는 것으로 大師의 1종을 말하므로 大師의 소유물은 될 수 없다. 大師와 동격이어서 體言修飾語인 ‘大師인’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는 ‘大師尸’에서 ‘尸’의 표기가 생략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의 예에 이러한 ‘-尸’이 보인다.

사) 我尸 今ハ 月光王 三寶シ 禮ソ白口ヲ云ク / 나인 지금의 月光은 三寶를 禮하옵는 것이다.<舊仁11,8-,9>

이는 舊仁의 예인데 舊仁에는 속격의 尸는 없고 그와 비슷한 ‘我尸/일’의 예가 있다. 이는 그 뒤에 이어지는 月光王이 자기를 가리킨 말이므로 ‘我尸 今ハ 月光王’은 ‘나인 지금의 月光은’으로 해석된다. 이는 속격조사인 尸과 ‘尸’은 기능이 다른 형태임을 말하여 준다.

다음의 尸도 해석상 異論들이 제기된 것이다.

9-1, 7) [於]佛尸 菩薩尸+ 常尸 淨信シ 生ソヒユ / 부처와 菩薩에게 항상 淨信을 생하여지이다.<華嚴6,7-,12>

나) [於]佛尸 菩薩尸+ 能支 恩德シ 知ヒユ / 부처와 菩薩에게 能히 恩德을 (값을 줄을) 알아지이다.<華嚴6,7-,12>

‘菩薩尸+’의 용례는 이밖에도 華嚴에 몇 예가 더 나타난다. 이 ‘-尸+’를 15세기국어의 ‘-의’와 같은 것으로 보아 尸를 ‘스’음의 표기, ‘+’를 ‘기’음의 표기로 보려는 假說이 제기 되었다.¹⁰⁾ 그러나 이 尸는 菩薩의 말을 첨기한 ‘르’음으로, ‘+/기’는 단순한 처격조사로 볼 수밖에 없는 예가 나온다.

다) 我尸 今ソク 已(ヒ) 諸尸 菩薩尸 爲ヒ 佛矢 往ソク 修勿ソクヒヒ 清淨行シ 說ソクシテ 尸 / 나는 이제 이미 모든 菩薩을 爲하여 부처가 已往에 닦은 바의 清淨行을 說하였다.<華嚴8,20-,24>

10) 註 9)에서 제기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한 證據의 하나로 제시되었다.

‘菩薩尸 爲 ㄹ’의 ‘爲 ㄹ’은 ‘삼-’으로 읽히어 현대국어의 ‘위하여’를 뜻하는 것이다. 이 시대의 釋讀口訣에서는 ‘ㄹ/ㅅ/삼’이 ‘衆 ㄹ 爲 ㄹ/ㅅ/衆의 삼<舊仁 11,10-,12>’, ‘衆 ㄹ 爲 ㄹ/衆의 삼<華嚴13,13-,16>’에서와 같이 처격 ‘ㄹ/의’를 지배하였다. 따라서 ㄹ)의 ‘菩薩尸 爲 ㄹ’의 ‘菩薩尸’은 여격조사인 ‘+/과’가 생략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 고려시대의 석독구결에선 15세기의 合用竝書의 合用字들을 모두 표기한 예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尸+가 ‘ㅅ’의 표기라면 合용자 ‘ㅅ’과 ‘ㄹ’을 모두 표기한 유일한 예가 된다. 당시로서 ‘ㅅ’의 표기는 ‘+’자 하나만으로 표기하는 것이 원칙이다.

ㄹ) 菩薩尸 功德聚 亦勿 然^ㄹナ^ㄹ / 菩薩의 功德 더미도 그러하다.
 <華嚴14,13-,14>

이 ‘菩薩尸’의 尸은 菩薩의 말음첨기로도 볼 수 있고 7-1)의 경우와 같이 속격조사로도 볼 수 있다. 속격조사로 보면 尸을 ‘ㅅ’음의 표기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8-1,ㄹ)의 예는 이를 속격조사로 보기 어렵게 한다. 역시 말음첨기일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다. 尸이 말음첨기이면 그 뒤에 오는 ‘ㄹ/ㅅ’의 표기는 생략된다.

다음의 예도 尸에 대하여 새로운 문제를 제기하여 주는 것이다.

9-2,ㄱ) 量 無^ㄹ 邊尸 無 劫 ㄹ+ / 量 없으며 가 없는 劫에<華嚴9,6-,9>

ㄴ) [是] ㄹ [如] ㄹ 邊尸 無^ㄹ 大功德 ㄹ / 이와 같이 가 없는 大功德을
 <華嚴9,6-9>

ㄷ) 能 邊尸 無^ㄹ 法 ㄹ 開演^ㄹ ㄹ 若 能 邊尸 無 法 ㄹ 開演^ㄹ ㄹ
 / 能히 가 없는 法을 開演하는 것이며 만약 能히 가 없는 法을 開演하는 것이라면<華嚴11,17-,20>

ㄹ) 大光明 ㄹ 放 ㄹ 有 邊尸 無 ㄹ ㄹ / 大光明을 放射하되 有邊 없이 하며<華嚴15,3-,7>

‘邊尸’을 15세기국어의 ‘ㅅ’을 표기한 것으로 보아 尸는 그 말음 ‘ㅅ’을 첨기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논의가 있다.11) 그러나 이 邊尸 다음에는 예외 없이 否定辭 ‘無/없-’이 온다는 제약을 가지고 있다. 否定辭 ‘無/없-’ 앞에 오는 尸가 ‘스’이 아니고 ‘르’이라면 동명사어미일 것이 예측되는데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약하다. 그러나 ㄹ)의 有邊尸는 2자로 된 한자어 用言이므로 尸를 동명사어미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 경우는 尸의 앞에 접미사 ‘-’나 ‘ㄹ’가 생략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것은

ㄹ) 說法 言辭 有礙尸 無全 / 說法の 言辭가 有礙함(막힘)이 없으며
 <華嚴15,5>

에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ㄱ)~ㄷ)의 邊尸도 용언으로 쓰이어 그 동명사어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다.

다른 한편으로는 邊의 훈에 ‘르’음을 가진 형태가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해 볼직도 한 것이다. 11 誥學會 月例 講讀會에선 ‘언저리’의 ‘언절’을 가정해 보려는 견해가 나오기도 하였다.

尸가 末音添記로 쓰인 것은 다음의 예들에서 분명하게 확인된다.

9-3, ㄱ) [是]ㄹ [如]ㄹ 一切尸+ 皆七 自在ㄹㄹㄹㄹㄹ / 이와 같은 ...
 一切 속에 모두 自在하도록 하는 것은<華嚴15,3-7>

‘一切尸+’의 一切은 ‘布施, 持戒, 忍辱, 精進, 禪定, 智慧, 方便, 神通’ 등을 총괄하는 말이므로 有情物 體言이 아니다. 따라서 ‘尸+’는 여격조사가 될 수 없으므로 尸의 음은 ‘스’이 아닌 ‘르’로 보아야 한다. 尸의 음을 ‘르’로 보면 이는 一切의 末音을 添記한 것으로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다.

ㄴ) 菩薩ㄹ 十尸 種行ㄹ 行ㄹㄹ / 菩薩은 열 種行을 行하고
 <華嚴18,15-,19>

11) 註 8), 9) 참조.

‘尸’의 尸도 ‘ㄹ’음으로 해석하여 그것이 十의 훈 ‘열’의 발음을 첨기한 것으로 보지 않고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이상에서 속격조사로 쓰이는 尸과 발음첨기로 쓰이는 尸을 고찰하였다. 이들은 尸이 ‘스’음을 나타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가설이 있어 왔으나 여러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역시 ‘ㄹ’음의 표기임이 확인된다.

4. 結 語

이제까지 우리는 高麗時代 釋讀口訣에 자주 쓰인 尸의 용례를 유형별로 나누어 그 기능을 고찰하여 보았다. 그 결과 이것이 동명사어미와 속격조사로 쓰인 것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간혹 末音添記로 쓰인 예가 있어 우리를 당황하게 하기도 하였으나 이제 그 사실이 확인되어 우리가 안심하고 다른 문제로 넘어 갈 수 있게 되었다 하겠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에 대신하기로 한다.

1. 尸동명사에는 대격, 속격, 처격, 공동격(접속)조사와 보조조사 ‘ㄱ/(으)ㄴ’과 ‘ㄷ/도’가 연결된 예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尸동명사에 붙는 조사는 한정되어 있어서 이 동명사어미가 쇠퇴의 길에 이미 들어서 있음을 말하여 준다.

2. 尸동명사에 연결될 격조사는 생략되는 예가 많다. 그리하여 그 격이 분명하지 않은 不定格의 예도 많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尸동명사가 부사어로 쓰이는 문법이 발달하였다. 이 현상은 話法動詞, 思惟動詞의 경우에 더욱 현저하게 나타나지만 일반 동사를 副詞化하는 경우도 있다.

3. 尸동명사형은 체언을 수식한다. 이것은 체언이 체언을 수식하는 국어의 문법구조에서 온 것이다. 이것은 후대에 이 尸동명사어미가 관형형어미로 발달하는 길을 만든 것이지만 이 석독구결들에선 동명사의 체언수식구조로 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았다. 이 구조에서 尸동명사가 의존명사 ‘入(으)ㄷ’를 수식하는 형태가 다양하게 쓰였는데 이들은 후대의 국어에 나타나는 여러 문법적 표현 양식의 초기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다.

4. 尸동명사어미 뒤에 語末語尾가 繫辭의 媒介 없이 직접 연결되는 문법

이 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ㅏ(으)여’, ‘-ㅑ/며’, ‘-ㅓ/고’ 등의 어미가 그것인데 앞으로 더 많은 예가 확인될 것으로 믿어진다. 이는 이들 語尾가 관형형어미 뒤에 이어지는 의존명사가 아님을 말하여 주는 것이다. 舊仁의 ‘-ㅓㅓㅓ/고늘며’, ‘-ㅓㅓㅓ/골며’, 華嚴의 ‘-ㅓㅓㅓ/을며’, ‘ㅓㅓㅓ/홀며’ 등의 난해한 ‘-ㅓ/ㄹ’과 ‘-ㅓ-’의 문법도 이로써 해결된 것으로 믿어진다.

5. ㅓ동명사어미는 否定法의 被否定辭의 어미로 쓰였다. 否定辭는 ‘不ㄴㅓ-/안돌ㅎ-’, ‘非ㄴㅓ-/안돌ㅎ-’, ‘不ㅓㅓ-/안돌ㅎ-’, ‘未ㅓㅓ-/안돌ㅎ-’, ‘未ㅓㅓ-/아니ㅎ-’, ‘勿ㅓㅓ-/勿ㅎ-’, ‘不能’, ‘無ㅓㅓ-’, ‘莫ㅓㅓ-/ㅓㅓ-’, ‘无ㅓㅓ-/无ㅎ-’, ‘無不’ 등이다. 이 가운데 ‘不ㄴㅓ-/안돌ㅎ-’, ‘非ㄴㅓ-/안돌ㅎ-’는 動詞文 부정사로 쓰인 것이지만 그밖의 것은 동사문과 명사문의 구별 없이 사용된 것이다.

6. ㅓ은 속격조사로도 쓰였다. 如來의 속격에 주로 쓰였으나 有情物體言, 無情物體言의 구별이 없이 사용된 예들이 나온다. 華嚴과 瑜伽에만 나타나고 舊仁에는 사용된 예가 확인되지 않는다. 특수한 형태의 속격조사이다.

7. ㅓ은 末音添記字로도 사용되었다. 菩薩ㅓ+, 菩薩ㅓ, 邊ㅓ, 一切ㅓ+, 十ㅓ의 ㅓ이 그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ㅓ이 동명사어미와 속격조사로 쓰인 것이 문법적 기능의 전부라고 하더라도 15세기국어에 없는 표현과 용법들이 나타나서 그 기능을 구체적으로 남김없이 다 파악했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정도의 사실만 확인하여도 우리는 이 시대의 국어에 대하여 어느 정도는 안심하고 접근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겠다.

앞으로 보충되어야 할 과제들로 다음과 같은 것을 우선 꼽을 수 있겠다.

-ㅓ과 또 다른 동명사어미 ‘-ㅓ/(으)ㄴ’과의 비교가 이루어져야 이 시대의 동명사어미의 전반이 정리될 수 있다. 또 ㅓ동명사어미는 ‘이’음을 가진 형태와 결합하여 ‘-ㅓ/리-’, ‘-ㅓ/리-’의 형태를 낳았다. 이들의 기능과 상호간의 차이가 정확히 구명되어야 동명사어미로서의 ‘-ㅓ/ㄹ’의 기능과 의미도 분명해질 것이다. -ㅓ의 속격적 기능은 특이한 것이다. 이들이 다른 자료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후대의 화석들도 확인할 수 있는지 등도 문제로 남는다.